대둔사 아미타부처님서 最古 복장발원문 나왔다



보물로 지정된 구미 대문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물에서 가장 오래된 발원문이 수습됐다.

구미 대둔사, 연구결과 보고회
동국대 문화유산硏 연구 조사
건칠아미타상 수습 복장물 조명
1295년 조성 기록 발원문 확인
현존 건칠불 중 '最古' 확인돼
구미시 "국보 지정 노력할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시방세계의 보신불[報佛] 중에서 비(悲)·원(願)이 가장 크신 분은 아미타불이 첫째이십니다. 이에 우리 빈도(貧道)들은 간절한 믿음과 정성을 내어 아미타불 1구를 빚어 만들고…"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이하 건칠아미타상·보물)에서 수습된 3건의 복장발원문 중 하나인 '득악사당주미타대성복장발원문'의 내용 중 일부다. 득익사(得益寺)는 현 대둔사의 전신으로 당시 발원 동참자들의 절절한 불심(佛心)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특히 해당 발원문은 '원정원년팔월일(元貞元年八月日)'이라는 작성 일자가 쓰여 있어 1295년(충렬왕 21) 8월에 불상의 복장에 납입됐음을 알 수 있다. 일련의 복장발원문들은 "단순히 건칠아미타상의 조성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그 불상이 봉안됐던 득익사의 역사와 조성 발원 구성원들의 신앙 모습에 대해 알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최연식)"다.



구미 대둔사는 11월 27일 고궁박물관 별관 대강당에서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요 내외빈과 발제자들의 기념촬영.

구미 대둔사(주지 서원 스님)에 모셔져 있는 건칠아미타상에서 수습된 복장물들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둔사는 11월 27일 서울 고궁박물관 별관 대강당에서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문화유산연구소가 주관했다.

보고회에서는 2024년 개금 불사 과정에서 수습된 복장물에 대한 연구 전반 결과들이 소개됐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가장 긴 분량의 '득악사당주미타대성복장발원문'이다. 전체 100행 2409자인 장문의 발원문에는 후면에 100명의 발원자와 동참자의 성명과 작성 일자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1295년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상의 조성과 중수, 그 의미'를 발표한 임영애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교수는 해당 복장발원문의 발견을 통해 "'대둔사 건칠아미타상'의 조성시기가 1295년으로 밝혔다. 이는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건칠불"이라며 "아울러 삼국·통일신라·고려를 통틀어 불상에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임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건칠불은 국내외를 모두 합쳐도 2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례가 희귀하며 조성 유행 시기도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라는 특정시기에만 집중돼 있었다. 또한 정확한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사례도 드물어 연구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 조사를 통해 건칠불 연구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임 교수는 "대둔사 건칠아미타상의 제작 시기가 분명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불분명했던 고려 후기 및 조선 초 불상들의 조성시기를 추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보고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구미 대둔사 주지 서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둔사 부처님 복장발원문을 접하는 순간 큰 감동이 있었다. 그 큰 발원과 간절함을 제가 이 시대에 이어서 어떻게 수행할지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며 "귀중한 발원문이 있는 건칠아미타상에 잘 모시며 아미타부처님의 큰 원을 이어가는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구미시를 대표해 참석한 정성현 구미 부시장은 건칠아미타상의 국보 승격·지정 추진을 약속했다. 정 부시장은 축사에서 "대둔사는 구미시를 대표하는 주요 사찰 중 한 곳으로 대둔사에 모셔진 건칠아미타좌상은 중요한 구미의 불교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사 연구를 통해 가장 오래된 복장발원문이 나온 만큼 구미시에서도 국보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만나는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장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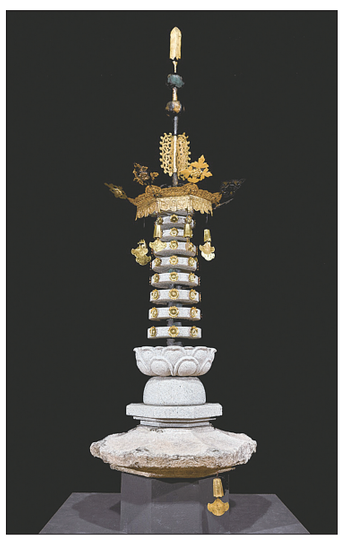
석탑 상륜부 보존처리 완료돼
월정사 성보박물관 공개 전시

환경적 요인으로 부식이 심각했던 국보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상륜부 금속장엄물이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일반에 공개됐다.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해운 스님)는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상륜부 금속장엄물에 대한 보존처리가 완료돼 11월 25일부터 박물관에 공개 전시된다"고 밝혔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예로부터 깊은 공경과 경탄의 대상이었다. 고려 후기 문신 정추는 "자장율사께서 지은 옛 절에 문수보살이 머무니, 탑 위에 천 년 동안 새가 날지 못한다"고 읊으며 탑의 성스러움을 노래하였다. 또한 1687년 월정사를 찾은 정시한은 〈산중일기〉에서 "법당 앞 구층석탑은 기이하고 신령하여 마치 하늘이 만든 것 같다"고 기록하며 당시 선비들에게 월정사 탑이 인간의 솜씨를 넘어선 '하늘의 탑'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시대 선비마저 사로잡았던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아름다움은 탑 상륜부 금속장엄물에서 절정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 2019~2024년 해체·보수 과정에서 오랜 세월 누적된 환경적 요인으로 탑 상륜부의 심각한 부식이 확인됐고 금속장엄물은 분리 보존조치 됐다.



보존처리를 완료한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상륜부. 11월 25일부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공개됐다.

이에 2024년 무형문화유산 기능보유자들의 전통 기법으로 새 상륜부 금속장엄물이 복원·설치됐고, 본래 금속장엄물은 서진문화유산(대표 김선덕)에서 장기간의 보존처리 완료 후 월정사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

이번 보존처리와 전시를 통해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상륜부의 구조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측에 9층 옥개석과 상륜부의 노반(露盤)·복발(覆鉢)·앙화(仰花)·보륜(寶輪)은 석재이며, 보개(寶蓋)·수연(水煙)·용차(龍車)·보주(寶珠)·찰주(擦柱)는 금속으로 구성됐다.

박물관 측은 "상륜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불탑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상징적·종교적 기능을 가진 요소"라며 "상륜부의 장식 표현은 부처의 지혜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적 성격일 지니는 중생계(인간세계)와 초월계(열반)을 연결하는 상징구조"라고 설명했다.

석탑을 장엄하였던 금속 장식물은 고려시대 금속공예 기법인 단금·단조·주물·조각·아말감 도금 등이 총 망라된 고려 시대 최대·최고의 공예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금속장엄물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보개와 수연은 동판에 조금(彫金), 타출(打出), 선조(線彫), 어자문(魚子文) 등의 조각기법을 가미하여 구름, 산, 연꽃잎, 여의두무늬 등을 새기고 표면에는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을 입혔다.

박물관 측은 "이번 월정사팔각구층석탑 금속장엄물 공개를 통해 지난 1000여 년간 탑 아래에서만 희미하게 볼 수 있었던 금속장엄물의 세부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면서 "제작 과정에서 남은 흔적, 고려 시대 수리흔적, 1970년대 보수 당시 황동판을 용접해 덧댄 보개 꽃무늬 장식 등 보존처리의 역사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고려 시대 최고의 금속공예품인 금속장엄물이 오랜 보존처리 끝에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관계기관과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유식·불전 수용…대행 선사 사상을 조명하다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오는 12월13일 안양본원서
연구원 2명, 주제발표 참여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25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이번 계절발표회는 대행선연구원의 두 전문 연구원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대행 선사의 사상 천착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유식의 삼신불 사상과 대행 선사의 법신 사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 연구원은 초기 대승의 이신불(二身佛) 이론이 후기 대승의 유식사상에서 정밀한 삼신불(三身佛) 체계로 구조화된 과정을 검토하고, 삼신을 심식 전환이 아닌 일심(一心, 한마음)의 즉각적 발현으로 이해한 대행 선사의 법신 사상을 고찰한다. 부처의 존재를 다면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대행 선사는 삼신불을 교학적 구조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는 생동하는 불성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중 수행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드러내고자 했음을 설명한다.

두 번째 주제인 '대행 선사의 불전(佛傳) 수용과 법수(法數)'를 발표하는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식인 '팔상성도'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종의 교판에 근거하여 성립했고 선종에서도 그대로 수용됐다는 점에서, 대행 선사가 부처님 일대기를 설명하는 동아시아 불교의 전통을 수용하는 양상을 살핀다. 특히 독창적으로 법수를 사용한 대행 선사는 팔상성도에 바탕을 두고 있는 '8'이라는 숫자를 부처님을 상징하는 법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계절발표회 논평자로는 김치온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박재용·김은영·이경희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나선다.

한편, 대행선연구원 제25회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031-470-3277 신중일 기자

한국 괘불 면면 담은 영문 총서 발간

국립문화유산硏 총4권 완간

한국불교 특유 불교회화인 괘불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영문 학술총서가 완간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한국 불교미술의 정수인 괘불(掛佛)의 지역적 특성과 예술성을 심층적으로 다룬 영문 학술총서 〈한국 괘불의 미(The Beauty of Korean Gwaebul)〉 총 4권 전집을 완간했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펴낸 〈한국 괘불의 미〉 영문판.

앞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현재 전해지는 120여 점의 괘불 가운데 국보·보물로 지정된 63점에 대해 2022년부터 실시한 심층 조사와 미술사적 분석 결과를 지역별로 정리해 총 4권의 국문판 〈한국 괘불의 미〉를 발간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영문판 1편을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 2~4편을 선보이게 됐다.

올해 발간된 2권(전라지역)에는 15점의 괘불과 초본 1점이 실렸다. 전라지역에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 괘불인 〈죽림사 세존 괘불탱〉(1622)을 비롯하여 초창기 괘불들이 전하고 있다.

3권(충청지역)에는 15점의 충청지역 괘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충청 지역은 많은 인물들을 그린 군도(群圖) 형식의 석가모니 괘불이 많아서, 초창기 괘불이 부처님을 단독으로 묘사한 독존도(獨尊圖)보다는 군도 형식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4권(서울·경기지역)에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경기지역 괘불 6점을 수록했다. 억불정책으로 조선 전기에 서울·경기지역의 괘불 조성은 활발하지 못했으나, 19세기 이후에는 왕실 발원 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수준 높은 괘불이 활발히 조성됐다.

영문 학술총서 〈한국 괘불의 미〉는 국외의 한국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배포되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누리집 내 '괘불 갤러리'에서 국가지정 괘불의 고화질 사진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영문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송현주 교수, 불교평론 뇌허학술상 수상

12월 18일 동국대동창회관서 시상식



2025년도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사진〉가 선정됐다.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송현주 교수를 결정했다. 수상저술은 〈한국불교, 근대종교로 태어나다〉이다"라고 밝혔다.

송 교수의 저작 〈한국불교, 근대종교로 태어나다〉는 19세기 후반 서구에서 탄생한 '종교(religion)' 개념이 동아시아에 도입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불교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근대적 '종교'로 재편되는 경로를 탐구한 역작이다.

심사위원회는 "불교를 중심으로 종교학을 하는 수상자는 우리 불교의 근대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 개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면서 "한국불교를 근대종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수상자의 역저는 21세기 한국불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찬했다.

송 교수는 "이번 상은 저의 연구 인생에 커다란 격려가 됐다. 이 책의 성과에 비해 이처럼 큰 상이 주어진 것은, 더욱 정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며 "부족한 이 저서를 의미 있게 평가해 주신 것만으로도 연구자로서 저에게는 큰 영광이자 위로가 아닐 수 없다. 제 책을 평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뇌허불교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5시 동국대 동창회관 5층에서 열린다. 신중일 기자